◆경희 45년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고난과 역경 헤쳐온 극복의 역사

박 정 훈

〈사범대 명예교수
경희 40년사 편찬위원장〉

지금 우리 경희는 그동안 마련한 대학발전 계획중 1차로 실행할 경희발전 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개교 50주년에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충만되고 있다.

그런데 그 발전모델은 담당자 몇사람의 지혜로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2개월여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는 17개 단과대학 방문 교수간담회와 각 부서별 업무보고회및 실무부처장 연찬회, 교무위원과 행정직원 연찬회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고등학교교사 초청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에 더하여 학생들의 생각과 바람을 가미한 것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그 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성취를 기대하면서 무릇 인류의 문화발전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조감하는 역사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대학이 지내온 45년의 역사를 회고한다는 일은 비약적인 재도약을 기약하는 강한 동기부일이 된다고 믿는 까닭에 우리 경희의 역사의 큰 줄기를 더듬어 보려고 한다.

우리 경희의 45년이란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며 7백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여러 대학들과 비교해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경희가 걸어온 그 짧은 시간은 남다르게 선구적이고 급속하게 발전한 값진 창조의 시간일뿐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오면서 약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도전의 시간이며 역사이다. 그리고 학원장 조영식박사의 짐벌어린 창조의지와 교육에 대한 부절한 신념의 소산이며 그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룩해 낸 진취적인 기상이 여러모로 비춰진 역사라는데 특징이 있다.

우리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가 상태의 신흥초급대학이 문을 연것은 1949년이다. 그러나 재단은 빈약했고 당시의 운영자들의 교육에 대한 무식견과 재정적인 낭비로 딸미암아 발전의 기틀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6.25의 동란을 맞이하여 학적부도 챙기지 못한채 부산에 피난은 갔지만 연락사무소조차 차릴 수 없음뿐 아니라 막대한 은행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 당시의 문교부로 부터는 딴학교와 합병을 하던가 폐교하라는 통첩을 받게 됨된 폐교 직전의 이름뿐이 학교였는데 1951년 5월 18일 설립자이신 학원장 조영식박사가 인수함으로써 우리 경희의 역사는 얄팽이 있는 역사창조의 길에 들어 섰던 것이다. 실로 이날은 경희의 비약적인 발전에 도약대가 된 날이고 세계적 유명대학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경희인의 의지가 탄생된 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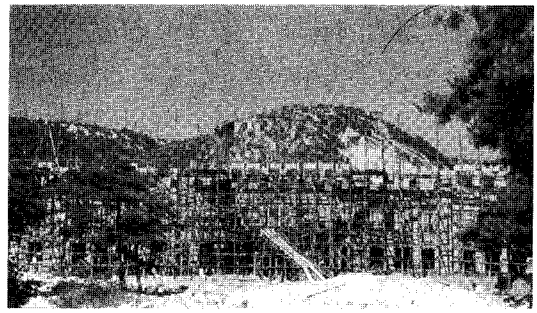
그리하여 조박사는 부산의 중심부인 중앙동3가 8번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재단확충과 단독개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다음해인 1952년 2월 23일에 교육법에 따른 초급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그후 불과 10개월만인 1952년 12월 9일에는 4년제대학의 설립인가를 성취해냈던 것이다. 생각컨대 이때에 4년제대학을 만들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경희는 이룩되지 못했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해 2월 9일에는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었고 그 힘을 몰아가서 드디어 1955년 2월 28일부로 종합대학교로 발전시키는 쾌거를 해 냈던 것이니 이 름뿐인 초급대학을 인수한지 불과 3년반만에 종합대학을 만드는 비약적인 도약을 성취함으로써 교육입국의 이상을 품고 창조의 횃불을 높이 쳐들면서 고난을 극복한 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의 우리 경희의 역사를 창조적 발전의 면과 슬기롭게 극복한 고난과 역경의 단면으로 나누어 약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으리라.

우리 경희는 45년전에 3학과 150평의 정원으로 출발한 가인가의 2년제 초급대학에서 오늘날 서울과 수원 그리고 광릉의 세 캠퍼스가 약 80만평의 교지를 가지고 있는 종합학원으로 성장하였고, 8개 대학원과 17개 단과대학에 73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되었다. 그 외에 2개의 전문대학과 6개의 병설학교를 거느린 국내 최초의 큰 종합학원체제로 발전하면서 성장해온 것이다.

이렇듯 당초에는 서울에 학캠퍼스를 이룩한 것이다.

우리 경희는 일찍이 인간교육을 내세우고 미래지향적이며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는데 힘썼다. 그리하여 캠퍼스에 들어설 건물은 물론 조형물들, 길 육을 내세우고 미래지향적이며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는데 힘썼다. 그리하여 캠퍼스에 들어설 건물은 물론 조형물들, 길 육을 내세우고 미래지향적이며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하는데 힘썼다. 그리하여 캠퍼스에 들어설 건물은 물론 조형물들, 길



▲고황골에 터를 잡은 경희는 그간 세계대학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나온 경희 역사는 한국사의 산 증인

길 하나, 나무 하나하나에도 온갖 정성 부여

역경속의 45주년, 재도약의 기회삼아야

되어 돌보는 사람없이 버려져 있었고 제석을 실어 나르던 소달구지길이 한가닥 나 있을뿐이고 나무들은 남벌되어 소나무 몇그루 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나무마저도 모두 잘라들고 산허리를 깎아내 운동장을 건설하며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나무를 심는 한편에서는 자연석을 실어다 축석하고 즐어설 건물의 모양과 배치등 다각적인 검토와 실계에 따라 건축과 조경사업을 힘차게 전개해 옴으로써 오늘의 경희동산 서울캠퍼스를 이룩한 것이다.

수원캠퍼스는 서울의 두배나 되는 명당터를 확보하고 1979년 6월 12일에 착공되었는데 원대한 포부가 그려진 매스터플랜에 따라 이미 대학별 건물과 학생회관, 실험동, 천문대등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중앙도서관이 멀지 않아 완공될 것인데 교문을 신갈호 입구에 내고 자연대학과 맞은 편에 본관등을 건축할 계획이나 아직도 법적인 규제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도 입학생수는 서울캠퍼스 보다 많고 캠퍼스도 보다 훌륭하게 발전해 나갈것이다.

또한 1984년에 광릉캠퍼스를 조성하여 평화복지대학원을 개교하여 경희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하면서 명문특수대학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희는 대학의 3대기능의 하나인 봉사면에서 타대학의 추종을 불허하는 빛나는 업적을 쌓아 왔다. 그중 몇가지는 국내외에 엄청난 파문을 던졌는데 그런 활동은 여기서 간추려 보건대 1965년 10월 12일에는 우리나라가 수천년간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 들이고 그것에서 헤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잘살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 운동은 후일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여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라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1967년부터는 자연보호운동, 꽃길·꽃동네 가꾸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오늘의 환경보호운동을 선도하는등 봉사의 기능을 최대화했다.

그뿐 아니라 1974년 8월 27일 '제1차 세계인류학자대회'에서는 조영식박사의 주제발표에 호응하여 '인류사회의 신선언'을 채택하였고 1975년 11월 11일의 제4차 세계대학총장회의는 조영식회장의 제창에 의한 '보스턴 선언'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전직대통령, 대학총장 60여명이 '밝은사회운동'을 공동발의하여 밝은사회국제클럽이 결성되었고 초대총재로 조박사가 추대됨으로써 경희는 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계에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1981년 11월 30일 UN총회로 하여금 조박사의 주도와 끈질긴 평화에의 집념이 마침내 '세계평화의 날',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게 함으로써 세계평화구현을 위한 경희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는등 경희는 학문만을 수수전달하는 대학이 아니라 나라발전과 인류사회재건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학으로서의 자리를 굳혀오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역사안에 있었던 고난과 역경에 관련한 사례를 몇가지만 추려서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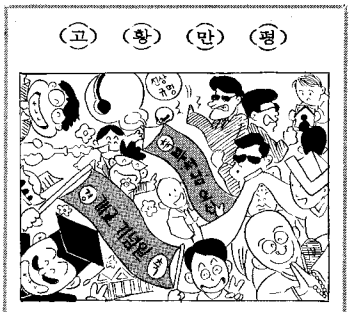
쇠는 불에서 강해지고 인간은 역경을 헤쳐 나올때 강자가 된다는 말과 같이 경희는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 나오면서 불사조의 기백으로 일취월장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쇠는 불에서 강해지고 인간은 역경을 헤쳐 나올때 강자가 된다. 사진은 1979년 수원캠퍼스 건설 모습(현재 공과대학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본관건축이 한창일때 그때의 재단이사와 교활한 교수 몇사람이 조영식박사의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저서에 좌익적인 색깔이 숨겨져 있다고 모함하여 치안당국에 구류시켜 놓고 그 사이에 대학의 실권을 찬탈하려고 한 조작된 필화사건이 있었으며, 예상의 초과지출 되는 가는 공사비를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자 집과 자동차를 내놓고 남의 집 담칸방에서 5인가족이 기거하며 걸어서 출퇴근하는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그를 병석에 눕게 한 일들을 위시하여 4.19나 5.16기타 정치적 변혁이 있을때 마다 자기들의 잘못과 무능으로 패교될뻔한 대학을 백지상태에서 온행빚마저 인계했던 이전의 경영자와 그것을 추종하는 몇사람이 대학탈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탈취를 위해 허위고발이나 고소사건이 잇달았던 일과 잘 살기운동에 대한 전국민적인 호응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등으로 우리 경희가 정권을 탐내고 있다고 의심하여 각종 압력을 가해온 1970년대와 1980년사태등 수 없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하여 참으로 그동안 적지않은 지장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지만 민족의 앙심과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는 이 강토에 정의는 외롭지 않아서 사필귀정으로 음모와 방해내지 탈취공작은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이렇듯 경희는 우리나라의 험준한 역사와 파렴치한 인간의 부정저한 작태에도 불구하고 경희는 보다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편제면에서나, 건물, 시설 그리고 학문연구와 사회봉사에서 꾸준하면서도 선구적인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다. 우리 경희의 역사는 결코 경희인에게 운이 터져서 기회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발전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경희인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빛나는 창조의 역사를 거울삼아 이번 개교 45주년을 기해서 마련할 경희발전 5개년계획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개교 50주년에는 가볼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 숨은그림 찾기"

다양한 기능
신속한 서비스
편리한 이용

— 온·라인 종합통장 하나로 다양한 금융거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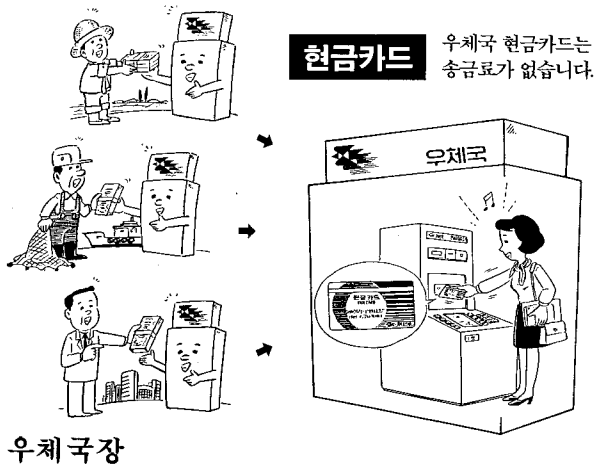
전국 모든 우체국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도서벽지까지 송·수금이 편리합니다.

경조환

축하금등 각종 경조금을 인사장과 함께 시간에 맞추어 전달해 드립니다.

현금카드

우체국 현금카드는 송금료가 없습니다.



서울경희대학교 우체국장

전화 : 960-2005, 964-8233(구내 : 0165)